

영국 왕립지리학회, 공원 대여로 인한 ‘공공공간의 민영화’ 문제 지적

<https://www.rgs.org/about/press-and-media/recent-press-releases/cash-strapped-councils-over-exploit-public-parks-b/>

<https://www.theguardian.com/cities/2018/aug/31/londons-parks-accused-of-creeping-privatisation-of-public-spaces>

영국 왕립지리학회(Royal Geographical Society: IBG)가 연례 국제 콘퍼런스에서 도시공원의 민간업체 대여와 관련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공공공간이 점차 민영화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.

IBG는 웨스트민스터대학의 도시지리학자 앤드류 스미스(Andrew Smith) 박사가 2년간 런던의 핀스버리파크(Finsbury Park)·거너스버리파크(Gunnersbury Park)·브록웰파크(Brockwell Park)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바탕으로, 음악 행사 등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공공공간인 도시공원이 매우 잦은 빈도로 임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 연구에 따르면 핀스버리파크에서 페스티벌의 준비와 개최로 점유된 일수가 2018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113일에 달하였다.

스미스 박사는 “런던의 도시공원은 높은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지만, 이는 공원 사용에 있어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”고 말하면서 “지역 주민들은 단순히 소음과 혼잡스러움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넘어, 공공공간의 민영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”고 강조하였다. 800만 명의 런던 시민과 매년 런던을 찾는 1,900만 명의 관광객에게 도시 생활을 즐기는 데 녹지 공간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, 이러한 공공공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. 뿐만 아니라 잦은 무대 설치와 펜스 설치 등이 공원의 경관이 훼손되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.

연구는 일정 기간 내에 시의회에서 허가할 수 있는 페스티벌의 횟수, 페스티벌 개최 시에 점거할 수 있는 공간의 규모와 시간 등을 규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. 또한 시의회가 민간 행사에 공공공간을 임대함으로써 얻는 수익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.



© Shutterstock